

1월 21일 눅 17;5-10 겨자씨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믿으십니까?”

아마 거의 다 믿으실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사막의 바위를 치니까 샘물이 솟아난 것,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소경이 눈을 뜬 기적,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만여명이 넘게 배불리 먹고서 열두 광주리가 남은 기적들을 믿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지 사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기적까지도 믿으실 것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아마 다 믿으신다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을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진지하게 마음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나한테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믿어지기는 하는데, 그 기적들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고, 나 같은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 앞에 부딪혔다고 생각하시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 정말 쉽고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실족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에게 걸림돌이 놓아서 실족시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걸림돌을 놓았다면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지 말고 찾아가 지적해주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루에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해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낙심이 되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저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믿음이 약해서 도저히 저렇게 까지는 할 수가 없지.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근심어린 목소리,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다같이 5 절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믿음을 증진시켜 주십시오.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정말 쉽고도 실제적인 해답을 주셨습니다.

다같이 6 절을 읽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겠다, 믿음을 증진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제시한 그런 삶을 살려면 믿음이 더 많아야 된단지,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내가 제시한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제자들은 믿음이 적어서 그런 삶을 못 산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믿음을, 담대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삶 속에서 사용하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뒤엎는 말씀입니다.

겨자씨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겨자씨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를 예로 드셨을까요? 왜 다른 씨를 예로 들지 않고 씨를 예로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를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씨를 예로 드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크다는 뜻의 대자, 크다는 뜻의 한자 붙여서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씀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양이 차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왕이면 태산만한 믿음, 오대양 같은 믿음이라고 해야 양이 찰 것인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족하다고 했으니 한국 사람들은 양이 안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6 절에 보니까,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뽕혀 바다에 심기우라고 명령하면, 뽕나무는 그대로 순종해서 바다에 심기울 것이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여기 **“뿌리가 뽕혀 바다에 심기우라”**는 말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뽕나무가 뿌리채 잘 뽕혀서 바다에 옮겨져서 바다에 잘 심겨져서, 바다 속에서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바다에 나무가 심겨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명령을 하면, 바다 속에서도 우리 명령대로 순종하느라고,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이렇게 뽕나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 이런 불가능한 기적까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나한테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 나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명령하지 못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믿음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의지하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선포할 때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믿음을 마음속에만, 머리 속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명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는데도 행하지 못하고, 명령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할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나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기적이 나 때문에 일어난다고 굳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나 때문에 일어날 터인데, 내 믿음을 보니까, 내 자신이 보아도 내 믿음이 너무 시원찮게 보이거든요. 겨자씨만큼 너무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용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사용하며 사느냐? 사용하지 않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명하느냐 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누가 일으켜주십니까? 축복을 누가 부어주십니까? 능력은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기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지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난 기적은 믿지만,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믿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 믿음을 사용해라, 그 믿음대로 행해라, 그 믿음대로 명령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아직도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큰 것을 좋아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은 더 더욱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셨지요? 문제는 적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명령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을 받게 될까요? 이 말씀을 앞으로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병이 있습니다. 그 병안에 콜라가 들어 있으면 콜라병이 됩니다. 참기름이 들어 있으면 참기름 병이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힘은, 그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담겨있는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사용하면, 주님께서 그 약속에 대하여 책임을 저주십니다. 과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고후 4:7-8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옹기 그릇이지만, 나라는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 된 것입니다.

“이는 그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면, 그렇게 행한 능력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니까, 질그릇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능력 행함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행동하며 사십시오. 그 믿음으로 명령하며 사십시오.

염려 근심에 눌러 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아 물러가라”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고 명령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명하십시오. 나를 얹메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뽕나무가 순종하듯이,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후에 갑자기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 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종을 여럿 두고 일을 하는 농가가 있었단다. 이 종들은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밭이나 들에 나가 일을 한단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밥을 다 준비해 놓고 종들을 기다려서 대접하는 일을 보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아무리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왔더라도, 집에 오면 또 식사를 지어서 주인에게 바치지 않느냐? 믿음의 일도 이와 같다.

이와같이 너희들도 가진 믿음을 사용하여 능력을 행하고 기적까지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고 살고, 선포하고 살고, 믿음대로 행하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믿음을 사용해 보니까 정말로 능력들이 나타나거든요. 믿음대로 행해보니까, 정말로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기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차츰 차츰 사람들이 알아주고, 뭔가가 일어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상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목아 뻗뻗해집니다. 목에 힘이들어갑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지요.

자기는 질그릇 밖에 안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보배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면서,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아주 드물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예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더니, 저와 친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자기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의 교인이 몇 명인지를 대략 맞출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교인의 수에 많은 목사님은 은연중에 목소리와 행동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서 유심히 목사님들을 관찰해보니까, 정말 맞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의 목소리부터가 다르고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쓰임을 받고, 뭔가 능력을 행하며 교만해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교만함을 경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능력있는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너희는 무익한 종처럼 겸손해져라. 마땅히 할 의무를 한 것 뿐이므로, 영적인 승리를 거둔 때라도 교만해져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든지, 어떤 기적을 행하든지, 또한 얼마나 높이 쓰임을 받든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이라도 고개를 쳐들고 뽐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어떤 능력이 이뤄졌다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이처럼 되었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질병도, 물질도, 환경도, 문제들도, 믿음을 사용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면, 우리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대로 일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되고 맙니다. 교만해지면 주님이 물리쳐 버리십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이뤄놓고도 실패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 져야 합니다.

교만의 유혹을 이겨내어,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